

#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부안 우반동(愚磻洞) 은거를 전후한 한시(漢詩) 작품의 정서\*

이 의 장 \*\*

<目次>

|                           |                      |
|---------------------------|----------------------|
| I. 머리말                    | 1. ‘安性命’의 순명(順命) 의식  |
| II. 우반동 은거 직전 감상(感傷)의 정서  | 2. ‘豹藏成章’의 발분(發奮) 정신 |
| III. 우반동 은거 이후 은일(隱逸)의 정서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6년 12월에 소개된 『반계일고(磻溪逸稿)』 원문의 한시작품을 읽고 분석한 결과이다.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한시를 잘 지으려고 노력한 전문 시인은 아니었다.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충실하여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솔한 정서를 토로한 ‘학자의 시인’이었다. 하지만 반계가 은거를 결행했던 1653년에는 심리적 갈등이 매우 많았고 또 이를 한시 형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반동 은거를 결행하기 직전의 작품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는 ‘感傷’의 정취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은거를 결행한 뒤의 작품에는

\* 이 논문은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학년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jgutang@wku.ac.kr

현실에 순응하는 ‘安性命’의 정취와 현실에 저항하는 ‘豹藏成章(표범이 숨어서 굶주림을 참으며 무늬를 완성시킨다는 뜻)’의 정신이 두 축을 형성하여 토로되고 있다. 반계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가면서 발분저서(發奮著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뛰어난 실력을 지녔지만 갖가지 원인으로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에 있어 반계의 삶은 훌륭한 귀감(龜鑑)이 된다. 반계는 학문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유형원(柳馨遠), 반계(磻溪), 한시(漢詩), 삶의 귀감(龜鑑)

## I. 머리말

조선시대 호남의 문인학자를 언급할 때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향이 호남은 아니었지만 대표적 저술들을 호남에 거주하며 완성함으로써 호남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반계는 전라북도 부안에 19년 남짓을 은거하면서 『반계수록(磻溪隧錄)』을 완성하여 실학을 개척하였고, 다산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을 저술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던 것이다.

반계와 다산은 호남에서 그들의 학문을 꽃피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두 인물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반계에 대한 연구는 다산에 비해 영성하기 짝이 없다. 연구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전해지는 반계의 저술이 『반계수록』을 제외하고는 연구할 만한 1차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1990년에 원로 한학자인 이우성 선생에 의해서 여러 문헌에 산일되어 있던 반계의 몇몇 작품들이 수집되어 『반계잡고(磻溪雜藁)』가 간행됨으로써, 반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반계수록』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확대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고문헌 연구가인 박철상에 의해서 반계가 엮은 『도정절집(陶靖節集)』이 보고되었으며,<sup>1)</sup> 같은 해 12월 한문학 연구가인 임형택 선생에 의해서 반계의 시(詩)와 문(文)이 수록된 『반계일고(磻溪逸稿)』가 소개되었다.<sup>2)</sup> 이에 반계의 문학적 글쓰기의 성과가 알려지게 되어, 반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바로 임형택 선생이 제공한 『반계일고』 원문의 한시작품을 읽고 분석한 결과이다.

## II. 우반동 은거 직전 감상(感傷)의 정서

반계 유형원은 한시(漢詩)를 즐겨 짓는 시인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문집의 일부인 『반계일고(磻溪逸稿)』에 수록된 한시는 동시대의 일반 문인들이 남긴 한시 작품의 수량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리고 반계가 지은 한시 작품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도 그의 시창작은 본령이 아니었으며 ‘시인의 시’가 아니고 ‘학자의 시’라는 개괄적인 평가가 있었다.<sup>4)</sup> 하지만 ‘학자의 시’라고 하여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시 창작이 본격적인 문학 활동으로 전개되

1) 박철상, 「磻溪 柳馨遠이 엮은 『陶靖節集』과 그의 逸民意識」, 『韓國實學研究』 11, 한국실학학회, 2006, pp.217-236.

2) 임형택, 「『磻溪逸稿』의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38, 한국한문학회, 2006, pp.7-29.

3) 필사본 46장인 『반계일고』에는 箴·銘·操가 7題, 고금체의 시편 169제, 산문에 속하는 「和歸去來辭」·「書隨錄後」·「東國文後序」의 3편이 실려있다고 보고되었다.(임형택, 위의 논문, p.10.)

4) 임형택, 위의 논문, p.10.

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예술성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반계 유형원이 남긴 169제 211수의 시편을 우반동에 은거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량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55제 65수의 작품이 은거 이전의 작품이고, 114제 146수가 은거 이후의 작품이다. 그런데 은거 이전의 작품을 다시 살펴보면 약 절반에 가까운 26제 32수가 반계가 은거를 결행했던 그 해인 1653년의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 분포는, 반계가 조부 유성민(柳成民)의 상(喪)을 마친 그 해 5월부터 우반동으로 은거를 결행한 그 해 겨울까지 심리적 갈등이 매우 많았고 또 이를 한시 형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반계가 우반동으로 은거를 결행하던 1653년 계사년(효종 4)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고뇌(苦惱)하는 인간 반계의 정서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다.

우선 「황려마(黃驪馬)」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有馬有馬黃驪馬! | 말이여, 말이여, 황려마여!                              |
| 初自月窟傳神種. | 처음부터 서역에서 전래된 뛰어난 종자였다네.                     |
| 意態稜稜合變化, | 자태가 의젓하고 다양한 모습인데                            |
| 紫瞳生燄毛骨聳. | 눈동자엔 불꽃이 일고 골격은 우뚝하구나.                       |
| 燕塞秋高鶴野闊, | 연산 변방 요동 벌 가을 하늘 드넓은 곳                       |
| 矯首長鳴北風起. | 북풍이 불어오면 머리를 쳐들고 길게 울리라.                     |
| 吾知爾生必有須, | 내 아노라, 네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소용이 있어                  |
| 一騁四海無遠邇. | 한 번 사해를 내달리게 되면 원근의 구분이 없을 것을. <sup>5)</sup> |

이 작품은 평측과 대우를 고려하지 않은 칠언고시이다. 작품 제목 아래에 “내종형의 집에 황려마가 있었는데 매우 빼어났으므로 보고 작품을 지었다.[內兄家有黃驪馬甚駿 見而賦之]”라는 반계가 직접 단 주석이 기록되어 있다.

5)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2.에서 재인용.

내용을 살펴보면, 제1, 2구는 검누런 빛을 띤 황려마가 명마의 산지인 서역(西域)의 종자임을 말하였고, 제3, 4구는 황려마의 외면에 대한 묘사로 늙름한 자태 및 이글거리는 눈동자와 우뚝한 골격을 묘사하였다. 제5, 6구는 황려마의 내면에 대한 묘사로 드넓은 요동 별관을 마음껏 내달리고 싶어 하는 황려마의 심정을 이해하였고, 제7, 8구는 천리마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황려마를 위로하고 있다.

반계 유형원의 가문은 본래 북인계열에 속하였다. 그의 부친 유흠(柳愨)은 인조반정 직후인 1623년 유몽인(柳夢寅)의 옥사에 잘못 연루되어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반계의 가문은 이 사건 이후로 벼슬길로의 진출이 거의 막히게 되었다. 이에 반계는 천리마로서의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황려마에서, 빼어난 실력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현실에서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 자신을 느끼고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정서를 토로하였던 것이다.

반계가 생활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사대부의 사회적 진출이 벼슬길 이외에는 마땅히 다른 출로가 없었다. 이에 반계 또한 벼슬길로의 진출을 준비하였고 또 희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나가는 세월[荏苒]」이라는 작품을 읽어본다.

|        |                                       |
|--------|---------------------------------------|
| 荏苒百年半, | 반백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구나                      |
| 蒼茫東海濱. | 동쪽 바다 모퉁이서 바쁘게 살다보니.                  |
| 山川綿道路, | 산과 내에는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
| 書劍老風塵. | 책과 같은 날리는 먼지에 늙어간다.                   |
| 落日看南鳥, | 해질 녘 남쪽 새를 쳐다보고                       |
| 中宵望北辰. | 한밤중 북극성을 올려다본다.                       |
| 平生請纓志, | 외적을 섬멸하려던 평소의 장한 뜻                    |
| 愧殺漢廷臣. | 한나라 조정 신하들에게 부끄러워 죽겠구나. <sup>7)</sup> |

6) ‘請纓’은 한(漢)나라 종군(終軍)이 남월(南越) 왕을 체포해 오겠다고 묶어줄 줄을 청했던 고사이다.

7) 柳馨遠, 『潘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09.에서 재인용.

이 작품은 평측과 대우를 맞춘 근체시 형식의 오언율시이다. 수련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해 가의 나라 조선에서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훌쩍 보내버린 세월에 대한 무상감을 과장하여 토로하였다. 함련에서는 책과 칼을 지니고 끝없이 뻗어 있는 길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걷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이곳의 ‘書劍’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문무(文武)의 역량을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서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벼슬길에 발탁해 줄 것을 갈구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南鳥’는 이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을, 그리고 ‘北辰’은 최고 권력자인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미련에서는 강력한 흥노의 침입을 이겨냈던 한나라 신하들에 비하여 자신은 만주족 청나라를 섬멸하지 못하여 부끄럽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이 지닌 장지(壯志)의 역설적 표현으로 보인다.

반계는 출신이 비록 북인계열에 속했지만, 15세 때 원주로 피난하면서 병자호란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국가적 치욕을 씻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나라에 모두 바쳐 충성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인 세력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색이 달랐던 반계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나이 갓 삼십을 넘긴 반계가 벌써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계 유형원은 부조리한 현실에 구차하게 타협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뜰의 소나무를 읊고, 이어 송정 옹에게 바치다[咏庭松, 仍呈松亭翁]」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愛爾孤松秀,                | 너 빼어난 한 그루 소나무를 아끼노니 |
| 靑靑貫四時.                | 사시사철 일관하는 푸르름을 지녔구나. |
| 自天勅直性,                | 천부적으로 성질이 굳세고 뾰뚱하며   |
| 承日鬱蔥姿.                | 해를 받들어 울울충충한 모양새구나.  |
| 老甲龍鱗折 <sup>8)</sup> , | 늙은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터져 있고 |

8) ‘折’은 ‘坼’의 오자로 판단되어 바로잡아 번역함.

層枝鶴翼披.    층을 이룬 가지는 학의 날개처럼 퍼져 있구나.  
齋居永相對,    한가로이 거처하며 길이 서로 마주하여  
歲晚托心期.    만년이 되도록 마음을 맡기겠다 약속하노라.<sup>9)</sup>

이 작품은 앞에서 살펴본 작품과 마찬가지로 오언율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에서는 사시사철 일관하여 푸르름을 변치 않는 빼어난 소나무를 사랑한다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천부적으로 꽃꽂힌 소나무의 품성과 울창한 가지로 해를 받들고 있는 소나무의 자태를 묘사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용 비늘처럼 늙어서 균열이 나 있는 소나무의 껍질과 학 날개처럼 층을 이루어 퍼져 있는 가지를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항상 소나무를 마주하여 늙도록 마음을 맡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함련과 경련의 묘사에는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자신은 성품이 곧아서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으며, 자신은 비늘이 터진 용이 되고 나래를 편 학이 되면 되었지 결코 일반 뱀이나 잡새는 되지 않겠다는 절조가 느껴진다. 소나무에게 함께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절조(節操)’를 면려(勉勵)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공부를 충분히 했고, 외적에게 당한 모욕을 씻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녔다고 반계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신을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외시키고 써주지 않는 권력자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아첨하고픈 생각이 반계에게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계가 자신과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고시를 본떠서 짓다.[擬古]」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步出城南隅,    도성 남쪽 모퉁이로 걸어 나가

9)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08.에서 재인용.

曠然登高臺. 시야가 트인 높은 누대에 올랐다.  
 山川遠鬱紆, 산천은 멀리 감싸고 돌아나가는데  
 極望形神開. 끝까지 바라보니 정신이 개운해진다.  
 眇彼雙黃鵠, 한 쌍의 고니가 보이는데  
 毛羽新毳毳. 날개의 털을 새로이 가다듬고 있다.  
 一舉視千里, 한 번 날면 천리를 내려다 볼 것이니  
 焉知斥鷃哈. 메추라기가 비웃은들 어찌 상관하겠는가.<sup>10)</sup>

이 작품은 실제의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고시(古詩)를 본떠 상상하여 창작한 것이다. 전반부는 도성 남쪽 지역에 있는 시야가 좋은 누각에 올라 산천을 내려다보니 그 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말이고, 후반부는 고니가 날개의 깃털을 가다듬으며 천 리를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길을 날지 못하는 메추라기가 비웃는다는 말이다.

천리를 비상할 날개를 가다듬는 고니는 천하를 경륜할 공부를 쌓아온 반계 자신을 나타내고, 이런 고니를 비웃는 메추라기는 하찮은 공부로 자잘한 벼슬자리를 차지한 채 반계 자신의 진출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을 나타내고 있다. 소인배의 방해로 진출이 좌절된 군자가 느끼는 ‘고독(孤獨)’의 정서가 배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력을 지니고도 남에게 시기를 당하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반계가 선택할 수 있는 출로는 오직 하나뿐이었으니, 바로 도연명이 걸었던 은둔의 길이었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 「병중에 기록하여 심 감찰에게 올리다.[病中錄奉沈監察]」를 읽어 본다.

病骨知晴雨, 병든 몸이어서 곳은 날씨를 알고  
 閑居費苦吟, 한가하여 쓸데없이 괴롭게 읊조립니다.  
 香燈看字懶, 등불 밑에 글자를 보는 일도 싫증나고  
 寒菊閉門深, 추운 국화에 단단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物理他猶我, 사물의 이치는 국화나 나나 마찬가지고

10)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1.에서 재인용.

民情古亦今.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由來靖節宅,    역대로 도연명 같은 사람들은  
終日一張琴.    거문고 하나로 날을 보냈습니다.<sup>11)</sup>

이 작품은 윗사람에게 올리는 것이어서 그런지 평측과 대우를 맞추고 있는 오언율시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자신의 몸은 병들어 날씨가 곱으면 쭈시고 평소에는 하릴없이 시나 읊조린다고 말하였다. 함련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도 사라져 그저 대문을 굳게 닫고 국화나 감상한다고 말하였다. 경련은 추운 가을에도 향기를 뿜는 국화는 자신의 절조와 한가지고, 부조리한 세상에 은거를 생각했던 과거 도연명의 심정은 오늘의 자신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말이다. 미련은 도연명처럼 은거할 경우 경제적 바탕 없이도 거문고 하나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부조리한 세상이 자신을 용납해주지 않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과 자신이 떠나는 길이다. 전자는 혁명을 도모해야 하고 후자는 은거를 결행해야 한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반계로서는 혁명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고 그저 ‘은거(隱居)’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계가 은거를 결행하기 전날 밤에 지은 「남쪽으로 귀거래하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이 밤에 찾아와 전별해주어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시를 지어 작별한다.[將歸南中, 隣人乘夕來餞, 夜分乃罷, 詩以作別]」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相逢月初出,    달이 처음 떴을 때 만나서  
相送月猶明.    달이 아직 밝을 때 전송한다.  
別後如相憶,    이별한 뒤 만약 서로가 그린다면  
晴輝夜夜生.    맑은 달빛은 밤마다 비추겠지요.<sup>12)</sup>

11)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2.에서 재인용.

12)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3.에서 재인용.

이 시는 내용에 충실하느라고 형식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내용을 음미해보면, 인생의 향로를 새롭게 설정하여 출발을 앞둔 전날 밤에 갖게 되는 감상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서로가 그리워하는 날이면 그 날은 반드시 달이 떠서 환히 비춰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이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밤이면 달을 쳐다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표현이다.

귀거래의 결행을 앞둔 반계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학자의 시’를 짓지 않고 지극히 감상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시인의 시’를 짓고 있다. “구름이 서울을 가득 덮어, 남산이 꼭대기만 보인다. 전체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떠야 하리.[濕雲滿中州, 終南露一層. 欲看全體大, 雲盡太陽升.]”<sup>13)</sup>라고 읊조리던 28세 무렵의 ‘학자 시인’과는 사뭇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거 결행 직전에 창작된 한시 작품들을 몇 수 감상해 보았다. 이들 작품에 토로된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정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초조감, ‘절조(節操)’의 면려(勉勵), ‘고독(孤獨)’의 정서, ‘유별(留別)’의 아쉬움 등등은 모두 감상(感傷)의 정서가 변주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우반동 은거 이후 은일(隱逸)의 정서

반계 유형원은 은자(隱者)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부안 우반동에서 시작하였다. 기왕의 연구를 참고하면, 반계가 우반동을 은거지로 선택한 것은 그곳의 경치가 아름다워서일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전장(田莊)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계의 조부 유성민(柳成民)이 우반동의 땅

13) 작품의 제목은 ‘朝起雨霽, 濕雲滿城, 唯南山上層一尖獨呈露, 宛似滄海孤島, 景色甚奇, 遂成一絕, 口號’이다.

을 김홍원(金弘遠)에게 팔 때 써준 토지매매문서에 “이 전답은 나의 6대 조이신 우의정 문간공(文簡公 柳寬-인용자 註)께서 태조조에 개국공신으로 책봉되어 왕으로부터 받은 사패지이다. …… 내(川)를 기준으로 그 서쪽은 그대로 두어 나의 농장으로 삼고, 내의 동쪽에 있는 집과 전답은 모두 김홍원에게 방매(放賣)한다.”<sup>14)</sup>는 내용이 보인다.

### 1. ‘安性命’의 순명(順命) 의식

반계가 우반동에서 누렸던 일상의 생활과 정서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나의보(羅宜甫)라는 사람이 반계에게 이를 물어온 데에 대한 답시인 「나의보가 시로 우반동의 은거생활을 묻기에 그 운을 따라 수답하다[羅宜甫以詩問愚磻幽居, 次其韻酬之]」를 읽어 본다.

|          |  |
|----------|--|
| 茅齋三面萬松青, | 초가집엔 삼면으로 소나무가 푸르고                     |
| 雲裏通泉汲曉星. | 구름 속 흘러오는 샘물에 새벽별을 길어온다.               |
| 耕釣晚知安性命, | 밭 갈고 낚시하며 안성명(安性命)을 뒤늦게 알았고            |
| 參同新試鍊精形. | 참동계(參同契)로 새로이 연단술을 시험해 본다.             |
| 竹滋晴露涼生枕  | 대나무는 맑은 이슬에 젖고 베개는 서늘하며                |
| 花發春風月滿庭. | 꽃은 봄바람에 피어나고 달빛은 뜰에 가득하다.              |
| 待得金爐丹九轉, | 화로에 단약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
| 直須招友訪瑤臺. | 곧장 벗을 불러 선계(仙界)를 찾아가리라. <sup>15)</sup> |

이 작품은 반계의 나이 37세, 곧 우반동에 은거한 지 다섯 해 째인 1658년(효종 9) 봄에 지은 것으로, 우반동에서의 일상생활과 그에 따른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에서는 소나무가 초가집을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고 맑은 샘물이 높은 산속에서 흘러온다고 하여, 거처하는 곳의 환경을 묘사하였다. 함련에서는 병든 몸을 도가의 양생

14) 전경목, 『愚磻洞』, 신아출판사, 2001, p.33.  
 15)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5.에서 재인용.

법으로 요양하면서 자신의 성명(性命)을 편안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경련에서는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화초와 정원을 비취주는 달빛을 묘사하고 있다. 미련은 단약(丹藥)이 완성되면 소식을 물어온 그 대를 불러 함께 선계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다섯 해에 걸친 은거 생활을 통하여 서울에서 입었던 좌절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거를 결행하기 이전 반계의 작품에 보이던 감상의 정서는 씻은 듯 사라지고, 그 대신 자신의 본성에 어울리는 삶을 발견하여 운명에 순응하는 ‘안성명(安性命)’의 정취가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기까지의 구체적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봄날 우연히 읊다[春日偶吟]」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東風一夜雨, | 봄바람에 밤새도록 비가 내리니                    |
| 百卉爭華滋. | 온갖 초목들이 아름다움을 다룬다.                  |
| 桃花欲破萼, | 복사꽃은 꽃망을 터뜨리려 하고                    |
| 杏花已滿枝. | 살구꽃은 벌써 가지에 만발하였다.                  |
| 柳絲拂烟絲, | 푸른 버들은 실가지로 손짓하고                    |
| 蒲長覆芳池. | 기다란 부들은 향기로운 연못을 덮고 있다.             |
| 鳥鳴自好音, | 새소리 절로 좋은 소리이니                      |
| 雲收仍霽暉. | 구름 걷히고 이어지는 화창한 날씨.                 |
| 物物各遂性, | 만물들이 제각기 본성을 이루어                    |
| 顏顏欣有怡. | 모습들은 혼연히 기쁜 기색이다.                   |
| 幽人夢初回, | 은거한 이 사람은 꿈에서 막 깨어나                 |
| 偶步東溪陂. | 우연히 동쪽 시냇가를 산보한다.                   |
| 歡然忘物我, | 흐뭇이 물아(物我)의 구분을 잊고                  |
| 杖藜隨所之. | 지팡이 짚고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 <sup>16)</sup> |

이 작품은 반계의 나이 36세인 1657년(효종 8) 봄에 지어진 오언고시로, 창작시기가 앞에서 살펴본 작품보다 1년 정도 빠르다. 내용을 살펴

16)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8.에서 재인용.

보면, 제1, 2구는 온갖 초목들이 봄바람 속에 내린 밤비를 충분히 머금고서 아름다운 자태를 다룬다는 말이다. 제3~6구는 복사꽃, 살구꽃, 버들가지, 부들을 등장시켜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제7, 8구에서는 비가 개고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이를 즐거워하는 새들을 등장시켜 변화를 주었다. 제9, 10구는 초목과 조수를 아우르는 모든 만물들이 제각기 본성을 이루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정리하였다. 제11~14구는 밤잠에서 깨어난 시인 자신이 우반동 시냇가를 산보하면서 이러한 자연과 한 덩어리임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반계는 초목과 조수가 본성을 마음껏 누리 생기가 넘치는 이곳 우반동에서 자연과 물아일체가 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제한된 자리에 진출하고자 각축하던 서울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환희의 정취이다.

이번에는 짤막한 「반곡에서의 즉흥[磻谷卽事]」이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谷谷深深一逕斜, | 골짜마다 깊숙이 오솔길 비스듬하고                  |
| 磻溪曲曲泛桃花. | 반계에는 굽이굽이 복사꽃 떠 온다.                 |
| 山人自是生涯足, | 산사람은 만족스런 생애라 여기나니                  |
| 脩竹千竿鎖碧霞. | 긴 대나무 숲이 산 구름에 잠겨있다. <sup>17)</sup> |

이 작품은 앞에서 살펴본 작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읊은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우반동 골짜기에 대한 묘사이고, 후반부는 그곳에서 누리는 생활의 정취를 토로하고 있다. 한시의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구조이다.

반계 유형원은 산 구름에 잠긴 대나무, 그리고 다시 그 대나무에 둘러싸인 집에 거처하면서 틈나는 대로 비스듬한 오솔길을 따라 골짜기를 산보하고 있다. 외부 세계와 격절된 이곳 우반동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17)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18.에서 재인용.

창문으로 스며들어 기쁘고, 밝은 달이 발 사이로 비추어 사랑스럽다.[已  
喜香風穿戶度, 更憐明月入簾來.]”<sup>18)</sup>고 하여 바람과 달을 벗 삼는 이곳 생  
활에 대하여 반계는 만족스런 생애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계가 살았던 우반동은 그곳 자체의 경치가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승지 변산(邊山)을 등지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바다를 대면하고 있  
다. 본성과 운명에 순응하기로[安性命] 한 반계는 이제 가까워서 자신을  
부르는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한가  
할 때마다 변산과 바다를 유람하면서 천혜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  
다.

먼저 변산을 유람했을 때의 정취를 표현한 「변산을 유람하면서 짓다  
[遊邊山作]」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邊山千疊秀, | 변산 겹겹의 봉우리 빼어나                       |
| 秋日興無窮. | 가을날 흥취는 끝이 없다.                       |
| 水噴瓊瑤界, | 폭포는 구슬 같은 물보라 뿜어내고                   |
| 人行錦繡中. | 사람은 비단 속을 걷는 듯하다.                    |
| 得詩非俗語, | 시구를 얻으면 속되지 아니하고                     |
| 開酒引仙翁. | 술병을 열어 신선과 함께 마신다.                   |
| 暫醉眠松石, | 잠깐 취해 소나무 곁의 바위 베고 자면                |
| 冷冷遠壑風. | 멀리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sup>19)</sup> |

이 작품은 반계가 38세였던 1659년(효종 10) 가을에 지은 것으로 추정  
되는 오연율시이다. 수련에서는 가을을 맞아 변산의 겹겹 빼어난 봉우  
리를 유람하는 흥취를 제시하였다. 함련에서는 하얀 물보라를 뿜어대는  
폭포수와 비단처럼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변산의 경치를 간략하게 그렸  
다. 경련에서는 승경을 유람하는 정취를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둔하

18) 위 작품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우연히 짓다[偶題]」라는 칠언절구에 보이는  
시구로, 전체의 내용은 “柴扉終日向陽開, 坐對東園百樹梅. 已喜香風穿戶度,  
更憐明月入簾來.”이다.

19)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6.에서 재인용.

고 있는 도사나 승려들을 만나 술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미련에서는 취기가 올라 소나무 곁의 바위를 잠시 베고 누우면 먼 골짜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말하였다.

변산을 유람한 작품 한 수를 더 읽어 본다. 「변산 절벽 위에 있는 천층암에서[千層菴, 在邊山絕壁上]」라는 작품이다.

|        |                                   |
|--------|-----------------------------------|
| 淨界無埃處, | 깨끗하여 티끌 하나 없는 곳에                  |
| 巍然一梵宮. | 아스라이 자리 잡은 절 한 채.                 |
| 星辰巖上下, | 별들은 바위 곁으로 떴다 지고                  |
| 日月屋西東. | 일월은 지붕 너머로 지나간다.                  |
| 不躡神仙窟, | 신선의 소굴에 와 보지 않으면                  |
| 那知造化功. | 조물주의 위대함을 어찌 알겠는가.                |
| 憑欄萬慮盡, | 난간에 기대니 온갖 생각 사라지고                |
| 身身御冷風. | 몸은 찬바람 타고 날아오르는 듯. <sup>20)</sup> |

이 작품은 반계가 37세였던 1658년(효종 9)에 지은 오언율시이다. 수련에서는 속세의 먼지가 없는 깨끗한 곳에 위치한 천층암을 등장시켰다. 함련에서는 일월성신의 천문 운행을 통해 아스라한 절벽 위에 위치한 천층암의 고도를 부각시켰다. 경련에서는 신선들의 소굴이 있는 이곳 변산을 유람해 보지 않고는 조물주의 위대함을 알 수 없다는 의론을 전개하였다. 미련에서는 천층암의 난간에 기대어 신선이 된 듯한 정취를 토로하였다.

반계는 “변산의 겹겹 봉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歷盡仙山千萬重]”<sup>21)</sup> 속세에서 가졌던 그간의 사념들을 모두 씻어내고 있다. 너무도 아름다워 신선 세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곳에서 마치 신선이 되어 날

20)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2.에서 재인용.  
 21) 반계가 우반동에 은거한 다음 해(1653)에 지었던 「변산을 유람하며 원효암에서 묵고 아침에 일어나 이 작품을 지었다[遊邊山 宿元曉菴 朝起作此]」라는 칠언절구에 보이는 시구로 전체의 내용은 “歷盡仙山千萬重, 歸來禪室夜聽鍾. 清晨試望登臨處, 天半寒雲鎖碧峯.”이다.

개가 돌아 바람을 타고 나는 듯한 정취를 만끽하였다.

이번에는 변산 앞 바다를 유람할 때의 정취를 표현한 「경자년 봄날 우연히 왕포를 유람했는데 매우 즐거워 춘주(春洲) 세 작품을 지었다(庚子春日, 偶遊王浦, 樂甚, 賦得春洲三律)」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        |                                    |
|--------|------------------------------------|
| 扶城二月暮, | 이월이 저물어가는 부안에서                     |
| 暇日行春洲. | 한가한 날 봄 바닷가를 거닌다.                  |
| 潮水忽迷岸, | 조수는 갑자기 해안가를 흐릿하게 만들고              |
| 歸帆遙逆流. | 돌아가는 고깃배 멀리서 물결을 거슬러 나아간다.         |
| 忘機鳥自狎, | 기심(機心)을 잊은 내게로 물새는 다가오고            |
| 得意魚相游. | 제철 만난 물고기는 서로 자유로이 헤엄친다.           |
| 浩蕩樂無極, | 드넓어서 즐거움이 끝없구나!                    |
| 隨波弄小舟. | 물결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노닐에. <sup>22)</sup> |

이 작품은 반계가 39세였던 1660년(현종 1)에 지은 오언율시 세 수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다. 수련은 부안에서 2월이 저물어 갈 때 한가한 날 바닷가를 노닌다고 하여, 시점과 지점을 밝혔다. 함련은 밀려오는 조수에서 일어난 물안개에 해안가가 흐릿해지고 멀리 돌아가는 고깃배가 보인다고 하여, 멀리서 바라보는 바닷가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경련은 기심(機心)이 사라진 자신에게 갈매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물고기들도 자유로이 헤엄친다고 하여, 앞 내용을 이어 가까이에서 보는 바닷가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미련은 사방이 특 트인 바다에 배를 띄우자 즐거움이 끝없다고 하여, 뱃놀이의 정취를 토로하였다.

반계는 때로는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물고기와 갈매기를 찍하기도 하고, 드넓은 바다에 배를 띄워 놀기도 하였다. 산과 바다를 아우르고 있는 우반동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산과 바다의 자연을 완상하는 은일(隱逸)의 정취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22)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7.에서 재인용.

## 2. ‘豹藏成章’의 발분(發奮) 정신

반계 유형원이 현실을 등지고 우반동에 들어 앉아 갈매기를 짝하며 ‘安性命’하여 은일의 삶에 만족하였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반계는 자아의 실현,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는가? 본래 반계의 생활 자세는, 매일 그날 먹었던 음식물과 그 날 일했던 것을 비교하여, 그 두 가지가 서로 걸맞으면 편안해 하였고 걸맞지 않으면 혀를 차면서 자책하여 등불을 밝혀 가며 밤을 지새울 정도로 사회적 책임의식이 철저하였다고 한다.<sup>23)</sup>

반계는 자신의 처지가 현실을 개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실을 더욱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                 |  |
|-----------------|--|
| 周園松檜四時青,        | 집 주위에 소나무 회나무 사철 푸르니                     |
| 南渡移來五改星.        | 이곳 남쪽으로 이사한 지 다섯 해가 지났다.                 |
| 任病惟知蝸蟄殼,        | 병에 말긴 채 오직 달팽이처럼 칩거할 줄만 아니               |
| <b>成章寧擬豹藏形.</b> | 문장을 이루려 어찌 흑표범처럼 몸을 숨긴 것이라.              |
| 階花溫露香穿戶,        | 섬돌의 꽃은 이슬에 젖어 향기가 창에 스며들고                |
| 山月隨人影在庭.        | 산위의 달은 사람을 따라와 그림자가 뜰에 생겨난다.             |
| 賴有清詩蘇肺渴,        | 맑은 시를 지어 폐갈(肺渴)을 소생시킬 수 있나니              |
| 春天高咏倚風櫺.        | 봄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어 크게 읊조린다. <sup>24)</sup> |

이 작품은 앞에서 살펴본 「나의보가 시로 우반동의 은거생활을 묻기에 그 운을 따라 수답하다[羅宜甫以詩問愚磻幽居, 次其韻酬之]」라는 작품의 제2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에서는 집 둘레에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며 자신이 이곳으로 이주한 지 다섯 해가 되었다고 하여, 작

23) 金瑞慶, 『澹溪逸稿』 卷3, “每日自計其日所食之物, 校其所爲之事, 曰: ‘某物若干, 某事若干, 相稱.’ 則怡然而安. 不稱則咄咄自責, 燃燈繼晷, 或至通宵不眠.” (박완식, 『國譯 澹溪逸稿』, 澹溪先生文集刊行會, 2004, p.217.에서 재인용).

24)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5.에서 재인용.

시의 지점과 시점을 밝혔다. 함련에서는 이곳에서 달팽이 껍질 같은 집에 칩거하면서 병든 몸을 요양하려는 것일 뿐이지, 흑표범처럼 몸을 숨겨 무늬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자신의 삶의 자세를 토로하였다. 경련에서는 섬돌 가에서 자라고 있는 꽃의 향기를 느끼고 뜰에 비치는 달을 짝한다고 하여, 자신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미련에서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시를 짓기 위해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어 읊조린다 하여, 문인학자로서의 또 다른 삶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우반동에서의 삶을 토로한 반계의 이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음풍농월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강한 부정은 때때로 강한 긍정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찌 ~하려는 것이라?”는 곧 “바로 ~하려는 것이다.”는 뜻의 적극적 표현인 것이다.

반계가 작품에서 인용한 ‘成章~豹藏’은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 보이는 내용이다. 도답자(陶答子)라는 사람의 부인이 “제가 듣자니, 남산에 흑표범이 있는데 안개 속에서 7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하니, 무슨 이유에서겠습니까?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고자 숨어서 피해를 멀리 한 것입니다.[妾聞南山有玄豹,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毛而成文章也, 故藏而遠害.]”라고 하였다 한다. 반계는 바로 이 고사를 부정의 형식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재 처지가 마치 몸을 숨기고 무늬의 변화를 기다리는 흑표범의 처지[成章~豹藏]와 같음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침[寄京中親友]」이라는 작품을 읽어본다.

|        |                        |
|--------|------------------------|
| 久客多羈思, | 오랜 객지생활에 나그네 수심 많은데    |
| 逢秋轉憶人. | 가을을 만나니 더욱 사람이 그립다오.   |
| 方音聞已慣, | 사투리는 들어서 벌써 익숙해졌고      |
| 舊友念難親. | 옛 친구들 생각나나 가까이하기 어렵다오. |

白雪歌何苦, 「백설(白雪)」의 노래에 괴롭기 짝이 없고  
 靑萍劍有神. 청평(靑萍)의 칼에 정신이 든다오.  
 休言好自逸, 은일의 삶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오  
 海內尙兵塵. 천하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오.<sup>25)</sup>

이 작품도 반계의 나이가 37세이던 1658년(효종 9)에 지은 오언율시이다. 수련에서는 우반동의 오랜 객지생활에 가을이 되니 친구가 그림다고 정회를 토로하였다. 함련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이미 귀에 익숙해졌는데 옛 친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생각만 할 뿐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경련은 절조를 면려하는 노래를 괴로이 부르고 때때로 청평검을 빼들여 자신을 일깨우고 있다며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였다. 미련은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자신은 은일 생활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반계는 우반동에 은거한 지 어느덧 다섯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명(南明) 정권에서 청(淸)나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흑표범이 안개 속에 숨어 무늬의 변화를 기다리듯이[豹藏成章], 자신도 우반동에 은거하여 때때로 칼을 들어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 없고 단절하려야 단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문인 반계는 발분저서(發奮著書)를 통해 ‘豹藏成章’을 구체화하였다. 「차운하여 휴정 숙부에게 올림[次韻呈休亭叔]」이라는 작품을 읽어 본다.

今古生生物與人, 예나 지금이나 만물과 사람을 낳고 또 낳는  
 天機流動又廻春. 천기(天機)가 흘러 또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始知豪氣全妨事, 호기(豪氣)는 일에 방해만 됨을 비로소 알았고  
 深愧當年闕敬身. 당시 몸을 삼가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對卷自然憂裏樂, 책을 대하면 절로 근심 속에서도 즐겁고

25) 柳馨遠, 『潘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2.에서 재인용.

啖蔬能任病而貧.   푸성귀만 먹어도 병들고 가난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閑來久坐看脩竹,   한가하면 오래 앉아 긴 대나무를 쳐다보는데  
 石室松窓靜絕塵.   석실의 소나무 창가는 진세와 떨어져 조용합니다.<sup>26)</sup>

이 작품은 반계의 나이가 40세이던 1661년(현종 2)에 지은 칠언율시이다. 제목 아래에는 반계가 직접 붙인 “잇따라 기술하는 일이 있어 열중하느라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책상을 마주함에 흐뭇해져서 삼가 높으신 작품에 의거하여 율시 한 수를 지어 올립니다. 한 번 웃어 주시지요.[連有記述事, 汨汨無他意, 忽對案怡然, 謹依高韻, 成一律以呈, 幸一哂]”라는 주석이 있다.

주석을 참고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생성시켜주는 천기가 유행하여 또 봄이 돌아왔다고 하여, 작시의 시기를 밝혔다. 함련에서는 그 동안 호기 부리기를 좋아하고 몸을 삼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여, 과거의 삶의 자세를 반성하였다. 경련에서는 울적할 때에도 책을 마주하면 즐거워지고 푸성귀 반찬으로도 병든 몸을 충분히 조리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의 저술 활동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미련에서는 한가할 때면 조용한 송창(松窓)을 통해 대나무를 쳐다본다고 하여, 앞으로도 현재의 저술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반계가 이 작품을 바친 ‘휴정(休亭)’이라는 인물은 유무(柳懋)로 반계의 재종숙이었다. 그는 병자호란 이후 충남 연산으로 내려와 몸소 농사지으면서 생활하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만년에 지행(志行)이 있다고 추천되어 벼슬에 제수되었지만 진출하지 않았던 인물이다.<sup>27)</sup>

26) 柳馨遠, 『磻溪逸稿』,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p.428.에서 재인용.

27) 반계가 이 작품과 동시에 지은 「또 한 수를 휴정 아저씨에게 답하다[又一首酬休亭叔]」라는 작품에서 “休亭吾再從叔懋之號也. 叔自丙子亂後, 避地連山, 躬耕獨善, 不求人知, 晚有薦其志行者, 除官不起.”라고 하여 그에 대해 밝힌 주석이 보인다.

반계의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발분저서로 ‘豹藏成章’을 실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삶의 방식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미래에도 계속 이런 생활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반계의 이러한 삶은 그의 제자였던 김서경(金瑞慶)이 스승을 위해 지은 행장(行狀)에서도 “시골로 내려온 뒤 송대 아래에 있는 죽림 가운데에 초가집을 짓고 수백 권의 책을 모아놓았다. 네모난 모자에 가죽 혁대를 차고 중일토록 단정히 앉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면서 정미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에 부합하고 일에 참고가 되면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을 뿐이 아니었다.”<sup>28)</sup>라고 하여,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IV. 맺음말

반계는 한시를 잘 지으려고 노력한 전문 시인은 아니었다.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충실하여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솔한 정서를 토로한 ‘학자의 시인’이었다. 『반계수록』의 「선거(選舉)」에서 “무릇 글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학술이 정밀한가 조잡한가를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짓는 데에만 뜻을 두면 마음씀이 이미 벗어나서 그 실상을 잃어버리게 된다.[夫文者出於心者也。見其文，則其人學術之精粗，亦可知也。然志於爲文，則用心已外，而喪其實矣]”<sup>29)</sup>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반계의 한시를 읽으면 그의 가식 없는 진솔한 정서가 독자의 가슴에 쉽게 와 닿는다.

28) 金瑞慶, 『澹溪逸稿』 卷3, “及其下鄉之後, 結茅於松臺下竹林中, 聚書數千卷, 方冠革帶, 終日端坐, 刻意覃思, 研極精微, 會之於吾心以參之於事, 爲其心之所嗜之, 不啻若芻豢之悅口也.”(박완식, 앞의 책, 2004, p.216.에서 재인용).

29) 안재순, 『조선 후기 실학의 비조 유형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182.에서 재인용.

우반동 은거를 전후한 한시 작품들에 배어 있는 정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반동 은거를 결행하기 직전의 작품에는 불여의(不如意)한 현실에서 느끼는 ‘感傷’의 정취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은거를 결행한 뒤의 작품에는 현실에 순응하는 ‘安性命’의 정취와 현실을 극복하는 ‘豹藏成章’의 정신이 두 축을 형성하여 토로되고 있다. 반계의 한시에 나타난 정서를 바탕으로 우반동에서의 반계의 삶을 총평한다면, 그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가면서 발분저서(發奮著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계 유형원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한 자아실현은, 현실에 대한 총체적 개조를 모색해 드디어 위대한 저술 『반계수록』을 완성하여 ‘실학의 비조’가 되는 디딤돌을 놓았다. 뛰어난 실력을 지녔지만 갖가지 원인으로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에 있어 반계의 삶은 훌륭한 귀감이 된다. 반계를 본받아 ‘안성명(安性命)’의 마음과 ‘표장성장(豹藏成章)’의 자세로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면,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을 초월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계 유형원은 학문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유형원, 『磻溪逸稿』 원문, 『韓國漢文學研究』 38, 2006.  
박완식, 『國譯 澹溪逸稿』, 澹溪先生文集刊行會, 2004.  
이우성, 『磻溪雜藁』, 여강출판사, 1990.
- 박철상, 「磻溪 柳馨遠이 엮은 『陶靖節集』과 그의 逸民意識」, 『韓國實學研究』 11, 한국실학학회, 2006.  
안재순, 『조선후기 실학의 비조 유형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임형택, 「『磻溪逸稿』의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38, 한국한문학회, 2006.  
전경목, 『愚磻洞』, 신이출판사, 2001.

### Abstract

*Emotion Appearing in Sino Poems(漢詩) of Bangye(磻溪) Yu Hyeong-won(柳馨遠)  
in the Period of Hermitage in Buan(扶安) Ubandong(愚磻洞) / Lee Eui Gang\**

This article is the results of analysis of original Sino poems on Bangyeilgo (磻溪逸稿) published on December in 2006.

Bangye(磻溪) Yu Hyeong-won(柳馨遠 1622-1673) was not a professional poet who tried to compose a good Sino poem. He was a Scholar Poet who composed poems showing his emotion spontaneously. However, in 1653 when he decided to retire to hermitage he had big psychological conflicts and he tried to express these conflicts in Sino poems.

In the works right before the hermitage, the primary emotion was ‘Sentiment (感傷)’ that he felt because of the reality. In the works after the hermitage, however, two spirits such as ‘Anseongmyeong (安性命; To accept the fate calmly)’ meaning following the reality and ‘Pyojangseongjang (豹藏成章; A leopard completes the pattern enduring hunger in a hideout) meaning resistance against the reality. Bangye realized his ego through Balbunjeoseo (發憤著書- Writings resulted from his painful efforts) balancing between acknowledgment of and resistance against the reality.

In the modern society full of people who cannot be placed in the right place with various reasons despite of remarkable capabilities, the life of Bangye can be a role model. It can be said that Bangye is the great teacher providing unlucky people with hope not only in academics but also in life.

**【Key words】** Yu Hyeong-won(柳馨遠), Bangye(磻溪), Sino Poems (漢詩),  
Role Model (龜鑑) of Life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

\* Professor, Department of Sino-Korean Education, Wonkwang Univ. / jgutang@wku.ac.kr